

그린나래

화성시청소년신문 「그린나래」 2017.07 제16호

기획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뤄낸 순간

2016년 10월 29일, 대한민국에서 또 한 번의 시민운동이 일어났다. 일명 '최순실게이트' 사건으로 온갖 부정부패가 밝혀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정부개혁을 목표로 국민들은 하나둘씩 광화문에 모였다. 촛불을 높이 들고 '박근혜는 퇴진하라!'라고 외치며 그 일대를 행진했다. 촛불집회는 회를 거듭해갈수록 모이는 인원이 늘어 12월 3일 날 열린 제 6차 촛불집회에는 약 23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박근혜 전 정부에 퇴진을 요구했다. 그 결과 평화적인 시위로 이루어내기 힘든 대통령 탄핵과 비정상적인 국정운영 실태에 대해 밝혀냈다. 평화적인 시위로 대통령 탄핵까지 이끌어 낸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모습이라며 여러 국가에서 주요 외신으로 보도했다.

민주주의의 발자취

민주주의의 사전적 뜻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1948년 5·10 총선거를 시작으로 발돋움 했다. 그러나 자유당의 영구집권을 목표로 한 3·15 부정선거, 5·16 군사 정변 등으로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부정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에 굽하지 않고 끝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데에는 시민의 공이 크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는 학생들의 거센 4·19혁명으로 대항했다. 이후 독재적인 군사정치에는 5·18민주화 운동으로 항쟁했다. 이 후 20대 청년이었던 박종철 열사는 고안당국에 붙잡혀 고문을 받아 사망하였고, 이한열 열사는 6월 민주항쟁 중 경찰이 던진 죄루탄에 맞아 사망하였다. 20대의 나이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순국하신 두 열사의 정신은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전쟁과 IMF 등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오늘날의 '촛불집회'를 만들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세월호 사건 수습 미흡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어두운 내막을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비폭력적으로 저항하였다. 이러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활동으로 이루어낸 현재의 대한민국은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가 생각 하던 대한민국의 모습과 닮아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하여

과거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한 청소년의 열망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그 힘은 현재의 민주주의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청소년의 시각은 어떠할까? 지난 5월 27일 화성시청소년기자단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민주주의는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소수의 의견도 무시되지 않는 것이다' 등의 의견이 나왔고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결사이며 토론이다'의 답변을 통해 과거 뜨거웠던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회상케 하기도 하였다. 청소년은 민주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참여 의사를 밝혔다. 또한 권리와 자유 보장, 소외계층 관련 답변으로 민주주의에 대하여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시선이 끊지만은 않았다. 청소년의 학업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가적 스캔들로 인해서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시선이 변화되었다. 대한민국 청소년 명예기자단이 지난 1월 30일 청소년단체 소속 학생과 직장인, 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7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그 중 85%가 '청소년도 사회구성원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이렇듯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해 인식이 변화된 것은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우리나라 정치

인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기 때문이다. 과거 청소년의 민주화 운동이 현재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것처럼, 현재의 청소년들은 미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긍정적이라는 영향을 줄 것이다.

민주주의는 영원히 계속되는 행진이다.

과거 많은 청소년들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여 지금의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었다.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 촛불집회에서 촛불을 밝히며 더 나은 민주주의의 나라를 꿈꾸는 청소년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많은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과거에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처럼 현재의 우리도 사회 이슈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민주, 김지혜, 조혜림, 흥수아 기자

CONTENTS

- 1면 [기획]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 2면 [청소년의 눈] 청소년의 운동실태
- 3면 [취재] 꿈은 크지! 희망은 나지! 함께하는 너지! 동탄에서 피우는 예술의 꽃 고요를 만나다
- 4면 [취재] 내가 청소년이다 화성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화합의 하모니, 반월소리나래 청소년오케스트라
- 5면 [교육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려진 특목고 폐지 바이호로 수시의 시대,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자주학년제, 옮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 6면 [문화부] 암표를 아시나요 민간요법, 당신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사랑이란 가면 속에 숨겨진 폭력
- 7면 [스포츠 연예부] 우리 모두 페어플레이 축구에 이런일이? 당신의 말 한마디, 연예인들의 상처
- 8면 가짜뉴스, 당신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칼로 칼을 막을 수는 없다 고발프로그램을 고발하다
- 9면 우리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인간의 존엄사, 우리는 인정해야 할까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 10면 예뻐지길 원해요 학교 앞 발암물질 전투비행장 논쟁
- 11면 차이는 차별이 아니다 인종차별 No! 알고는 있지만... 우리도 사랑받고 싶어요
- 12면 여름방학 청소년진로체험 청소년스킨스쿠버



청소년의 눈
양케이트

[청소년 운동실태] 설문조사지

▶조사기간: 2017.5.22.~5.31

▶조사방법: 설문지 응답

▶조사대상: 화성관내 중·고등학생 534명

▶조사진행 및 분석: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최근 청소년들의 운동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성장기에 열심히 땀 흘리며 운동을 해야 하는 청소년이지만, 건강보다 대학입시, 나아가 취업을 위한 성적 향상에 많은 시간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학업에 밀려 운동시간이 줄어 운동 부족까지 이르게 되었다. 학교나 학원에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청소년들에겐 운동을 할 시간도, 공간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생기고 있다.

우리는 학생들의 운동실태와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화성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 어느 학교에 재학 중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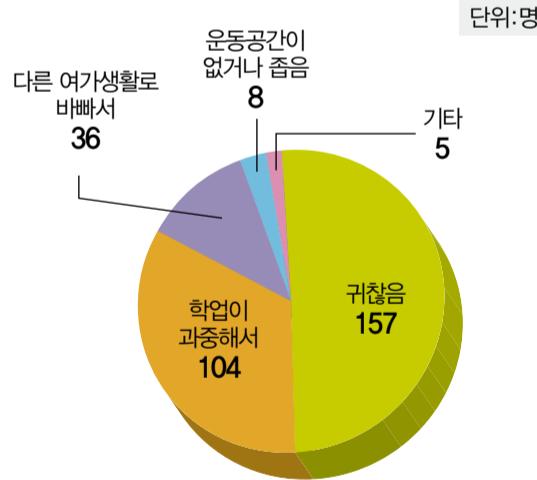
□ 중학교 334명 □ 고등학교 200명

2. 일주일에 몇 시간 운동하십니까?

(숨쉬기, 스트레칭, 단순 걷기, 정규체육시간 제외)



2-1. (2번에서 1시간 이하에 체크하신 분에 한해) 왜 운동을 하지 않으십니까?



전체 설문 응답자 중 일주일에 30분 미만 운동하는 학생이 204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분이상 1시간 미만 운동하는 학생이 10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비교적 운동 시간이 적은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시간이 적은(1시간 이하) 학생들 중 157명이 귀찮다는 이유로, 104명이 학업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운동공간이 없거나 좁아서 하지 않는다는 학생들은 8명으로 가장 적었다. 운동을 하기엔 무리가 있는 과도한 학업량도 학생들의 운동 부족 원인에 한 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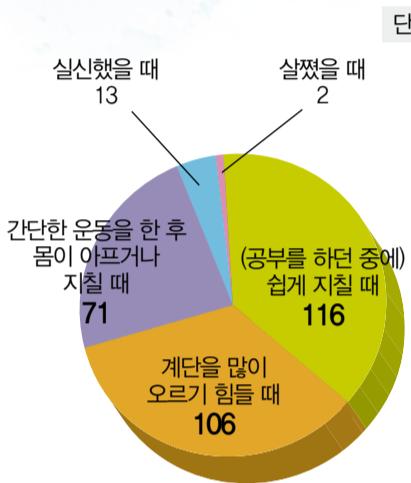
3. 정규시간 외에 자발적인 운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예 402명 □ 아니요 132명

534명의 학생 중 과반수가 훨씬 넘는 402명의 학생들이 정규시간 외에 자발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의 정규시간이 운동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4. 자신이 운동부족이라고 느끼십니까?

- 예 (4-1번으로 가세요) 308명
□ 아니요 (5번으로 가세요) 226명

4-1. (운동부족이라고 느낀다에 체크하신 분에 한해)
언제 운동부족이라고 느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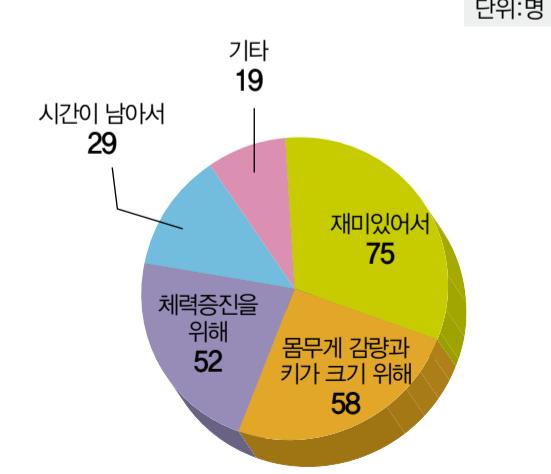
절반이 넘는 308명의 학생들은 자신이 운동부족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들 중 116명의 학생들이 주로 공부를 하던 중에 쉽게 지칠 때 운동부족을 실감한다고 답변했다. 106명의 학생들은 계단을 오르기 힘들 때 실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살이 찼을 때 운동부족이라고 느끼는 학생은 단 2명에 불과했다.

5. 운동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등이 모두 지원된다면, 무슨 운동을 하고 싶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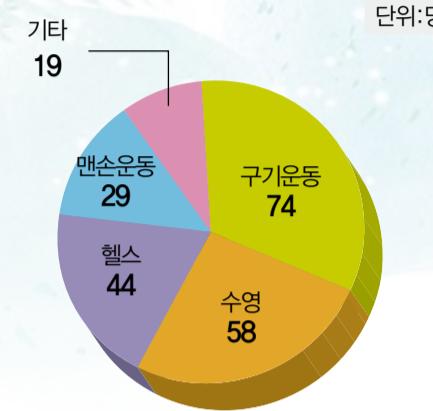
- 구기운동 231명 □ 헬스 156명 □ 수영 82명
□ 맨손운동 23명 □ 기타 8명

학생들에게 운동시간과 공간 등이 모두 지원될 때,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구기운동이 231명으로 제일 많은 수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헬스를 156명, 수영을 82명이 선택했다.

6. (2번에서 1시간 이상에 체크하신 분에 한해) 왜 운동을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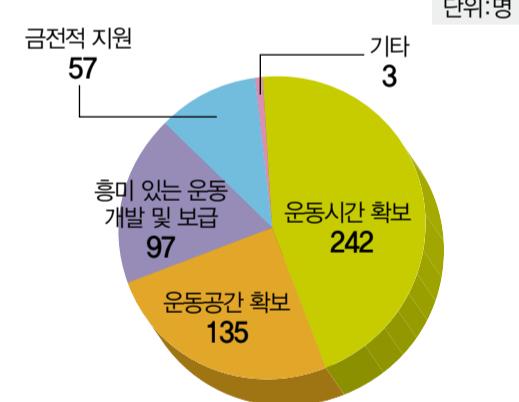


7. (2번에서 1시간 이상에 체크하신 분에 한해) 주변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운동은 무엇입니까?



반면 운동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비교적 긴 학생들도 있었다. 재미있어서 운동을 한다는 답변이 75명으로 가장 많았고, 몸무게 감량과 키가 크기 위해서, 체력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학생들이 뒤를 이었다. 시간이 남아서 즉, 운동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29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학생들이 마음 편히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정규 수업시간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 시간이 긴 학생들 중 74명이 주변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운동으로 구기운동을 선택했다.

8. 청소년이 운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나 여건은 무엇인가요?



조사 결과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운동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선택했다. 운동공간 확보는 135명으로 운동시간 확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되었다. 흥미 있는 운동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97명으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생보다 많았다. 흥미 있는 운동이 개발되고 보급된다면 귀찮아서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과중한 학업량에 고통 받는다. 청소년들은 공부를 오래하기 위해서 체력증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간 및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는 체력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학생의 본분이 공부라지만, 체력을 관리하기 위한 운동은 필수요소이다. 청소년들이 공부에만 목매이지 않고 자신의 체력도 관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와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취재

꿈은 크지! 희망은 너지! 함께하는 너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다.

2017년 5월 27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 센트럴 파크에서 '2017 청소년 페스티벌'이 열렸다. 청소년 페스티벌은 화성시가 주최하고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고 청소년 모두가 주인이 되어 청소년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축제이다. 청소년들에게 끼와 열정을 표출하고 건전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된 이번 페스티벌에는 청소년 등 시민 3,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축제의 축사를 맡은 황성태 부시장은 "스트레스와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재충전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 말하며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축사를 보냈다.

페스티벌이 시작하기 전 기념식에서는 청소년 현장 낭독과 모범 청소년 공연이 있었으며, '청소년 강연 토크콘서트'에서는 동탄 국제고등학교 변현준(17), 삼고고등학교 양정원(17) 학생이 자신이 꿈꾸는 삶에 대해 진솔한 강연을 하였다. 청소년들에게 꿈 미래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공부의 신' 강성태, '골든 마이크' 우승자 배계씨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또 '힐링 콘서트'에서는 청소년 종합예술제 입상자 등 10여 팀의 공연을 비롯해 국내 인기 가수 오마이걸, 고등래퍼의 이동민과 김규현, 쿨러닝, 소녀주의보의 공연으로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을 위해 관내 학교를 비롯해 로봇·연극·심리 등 청소년 동아리들의 홍보 부스와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티셔츠 만들기 등을 개최하여 체험부스들이 시민의 관심을 끌었다. 화성시청소년참여자치회도 각자 특색에 맞춰 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이루어져 행사의 질을 더욱 더 높였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 이번 페스티벌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잠재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청소년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이 장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심영준, 목민수 기자

동탄에서 피우는 예술의 꽃

동탄예술시장을 가다

날씨가 좋아지며 더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나오고 있다. 그에 따라 각 도시들은 자신들의 특색을 살린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축제는 누구에게나 즐거운 일이다. 그런 축제가 동탄에도 있는데 바로 동탄예술시장이다. 동탄 예술시장은 시민 누구나 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화성시의 우수한 생활문화예술 작품이 유통되는 문화예술 소통의 장이다. 그렇다면 동탄예술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즐길 수 있을까?

축제의 입구로 들어서면 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 가수, 일명 버스커들의 신나는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음악에 이끌려 걷다 보면 두 가지의 버스킹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청년 버스킹으로 미리 신청한 청년들이 관중들 앞에서 독무대를 펼치는 공연이다. 두 번째는 낭만 버스

킹으로 전문 버스킹 팀이 펼치는 공연으로 전문적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버스킹 공연이 끝나면 그 옆에서는 둑자리 영화관을 시작한다. 둑자리 영화관은 영화 상영화면 앞에 둑자리를 깔고 앉아서 감상하는 영화관으로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다. 동탄예술시장이 '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에는 프로그램중 하나인 나이트마켓이 있다. 나이트마켓은 예술 야시장으로 다양한 예술가들이 자리를 잡고 '도자기 만들기', '가죽 공예' 등의 재능을 판매할 수 있다.

이 예술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역시 거리공연이다. 가수들의 흥겨운 음악소리와 마술사의 마술공연 등은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공연을 관람하던 한 시민은 "이 축제는 좋은 축제이다. 청년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도 즐겁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만큼 축제와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동탄예술시장은 2주일에 한번씩 메타폴리스 썬크나이트에서 진행된다. 도심에서 진행되는 예술축제는 많지 않다. 만약 청년 예술가들의 열정을 느끼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동탄예술시장이 딱 맞을 것이다. 가족과 함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찾는다면 동



탄예술시장을 찾아가 열정 넘치는 생활문화예술을 즐겨보자.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승현, 박승주 기자

고요를 만나다

한정식 작가의 <고요>를 보다



"우리가 평소에 보고 지나쳤을 법한 사물을 사진으로 담아내어 특별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대일고등학교 2학년 조연주 학생이 전시회를 관람하고 나서 한 말이다.

지난 4월 14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선 한국

현대미술작가 시리즈 한정식 :고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한정식:고요> 전은 크게 세 가지의 섹션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무, 빛, 풍경론'으로 작가가 추상사진에 처음 관심을 가지고 사물의 형태가 지니는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며, 교감해 나가는 일련의 작업 과정을 엮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작가의 대표작인 '고요 시리즈'를 통해 작가가 탐구하고 고민하는 작품 세계의 의미를 짚어낸다.고요 시리즈는 대상의 구체적인 형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사진의 특성을 극복해 낸 한정식 작가의 작품

이다. 작가는 대상의 형상의 특징에 얹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대상에 접근하여 기존 사물이 가진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낸다. 사진의 필연적 특성인 구상성을 벗어나 추상사진의 완성으로서 느낌만으로 관람객과 만나게 한다. 마지막 섹션인 아카이브 공간에는 사진전

공자들에게는 필독서로 꼽히는 한정식의 '사진예술개론'을 비롯한 '북촌' 시리즈가 담긴 도록 등이 비치되어 있다. 이번 전시는 평생 사물이 가진 미학 자체를 추구해 온 한정식의 작품세계를 접할 수 있는 동시에 한국 현대사진의 역사를 감상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사진작가 한정식은 한국 최초로 사진학회를 창립하고 학술지를 발간함으로써 사진 이론의 전문적인 환경 조성에 공헌한 장본인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시는 1980년대부터 최근작까지 전 생애 작품 100여점을 한데 모아 일목요연하게 작가의 작품세계를 다루고 있다.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은 작가가 평생에 걸쳐 추구해온 추상사진인 '고요' 시리즈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고요>전시는 2017년 8월 6일까지 하며, 또한 관람비의 부담이 없는 무료 관람이므로 즐길 수 있다. 전의 전시를 보지 못했어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 전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편히 즐기고 올 수 있으니 아직 보지 못했더라면 관람하는 것을 추천한다.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민주, 최은진 기자

취재

내가 청소년이다!



화성시 청소년들의 과감 없는 이야기



“지금 네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해줄 수 있니?”라는 요청에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여기, 네 인생에 대해 말해보라는 얘기에 당당하게 손을 든 두 명의 청소년이 있다.

지난 5월 27일, 동탄 센트럴파크에서는 ‘2017청소년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꿈은 크지, 희망은 나지, 함께하는 너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에는 이전과는 다른 조금 특별한 무대가 열렸다. 바로 두 명의 용감한 청소년들의 무대였다. 약 10분 정도의 강연을 준비한 두 청소년은 동탄국제고등학교 변현준(17), 삼고고등학교 양정원(17)학생이다. 변현준 군은 대통령이라는 장래희망을 크게 말한 후 ‘내가 꿈꾸는 삶’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했다. 양정원 양은 ‘YOLO(You Only Live Once)’라는 신조어와 함께 자신의 인생에 대해 강연했다. 페스티벌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반응도 좋았다. SNS 홍보를 통해 페스티벌에 놀러 온 푸른중학교 장00(16)은 “또래 청소년의 강연을 통해 인생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말했다. 또 삼고고등학교 장00(17)은 “강연에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아 울컥했다.”고 했다. 이번 강연에서 아쉬웠던 점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안화중학교 안00(15)는 “강연에 현실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있어서 좋았으나 듣는 사람들이 경청을 하지 않아 아쉬웠다”고 답했다.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강연자에게 호응하지 않았고 묵묵히 앉아있기만 했다. 변현준 군은 “듣는 사람은 많았으나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지 않아 서운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사로잡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강연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저희의 강연을 보려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얘기는 양정원 양도 비슷하게 언급했다. 사람이 많고 열린 공간이라 좋긴 했지만 조금 더 호응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전한 것이다.

이번 청소년 강연은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진행하였다. 강연의 시작과 끝 모두 청소년들이 진심

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강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들의 강연을 보려 온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다. 또한 자리를 채운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명인사의 강연을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진심에 조금 더 진지하게 반응해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채희은기자

화성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제부도아트파크 개관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제부도. 한 해 17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일명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지역이 우리나라 몇 곳이 있는데, 제부도는 그 중 한 곳으로 면적 0.98km²의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경치, 수산물 등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이곳의 일몰은 가히 절경이라 할 정도로 유명하다.

최근 제부도는 해안길을 따라 상업 지구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보 길을 아름답게 바꾸는 등, 여러 정비작업을 통해 관광지로서의 발판을 다졌다. 또한 제부도를 여러 가

지 방면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해 화성시는 경기도의 경기만에코뮤지엄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플랫폼인 ‘제부도아트파크’를 성공적으로 개관했다. 제부도아트파크는 현재 완공된 상태이며 여섯 개의 노출컨테이너를 활용해 조성됐다. 또한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층 컨테이너는 전시실로서 누구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2층 컨테이너는 제부도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감상할 수 있도록 다목적 조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제부도가 노을질 때 해수욕장을 따라 걸으면서 보는

매바위와 풍력발전기등 아름다운 경치가 장관을 이루는 섬이니만큼, 이번 제부도아트파크 개관에 대한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제부도아트파크 관계자는 “이번 아트파크의 개관으로 제부도는 주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 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부도는 섬이지만 차량을 이용하여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자칫 밀물 때 도로가 잠길 수 있으므로 밀물, 썰물시간대를 확실하게 알아보고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 등, 제부도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가족, 연인,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서해바다를 배경으로 제부도와 제부도 아트파크에서 소중한 추억 하나씩 남기고 오는 것은 어떨까.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길원영 기자

화합의 하모니, 반월소리나래 청소년오케스트라

학생들의 손에서 펼쳐지는 화합의 세상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로지 실력으로, 결과로 평가받을 수 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반월소리나래 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소리나래)라는 화합과 배려, 그리고 실력보다는 과정에 가치를 둘으로써 안식처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소리나래는 지난 2015년에 관내 학생 80여명이 모여 설립됐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외부 지역에서도 입단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반월동 및 타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60명이 활동하고 있다.

소리나래는 매년 경로당 연주 3번, 지역봉사연주 3번, 정기연주회 1번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화성 반월중학교 송준규 학생은 “봉사연주를 하면서 관객 분들의 즐거운 모습을 볼 때 뿌듯함을 느낀다.”며 “지금까지의 활동 말고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연주도 해 보고 싶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악기연주 실력이 향상된다는 부분이 오케스트라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

다. 이처럼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해내고 음악을 통해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소리나래의 중요한 역할이다. 소리나래는 지역 문화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입단을 위해 방과후 수업으로 악기를 배우는 학생들이 듣고 있고, 연주활동으로 시민들의 귀도 즐겁게 해 주고 있다.

단장은 인터뷰 중 학생들 사이의 ‘화합’과 ‘배려’를 강조했다. 오케스트라 활동이 단순히 실력만이 아닌 화합을 통한 배려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배려할 줄 알고 사회의 다양한 색깔과 화합 할 수 있는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로 소리나래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끈끈한 연대로 이어져 있었으며, 이 연대가 마음을 울

리는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작은 사회’라고 불리는 학교에서마저도 학생들은 실력과 결과로 경쟁하고 평가받는다. 오케스트라의 어린 단원들은 실력이 아닌 배려를 배웠다. 어찌면 아이들이 배운 화합과 소통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실력 보다 더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언젠가 반월소리나래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사람들에게 화합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화성시청소년기자단 백민서 기자



논란의 도마 위에 올려진 특목고 폐지

특목고, 사교육을 키울까 재능을 키울까

5월 9일 대선을 통해 당선된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이 내세운 '특목고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다. 그동한 특목고는 입시의 유리한 환경으로 교육 불평등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특목고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으로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 하기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고교 계층화, 서열화, 경쟁 등 많은 사회적, 교육적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이 공약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특목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특목고가 폐지되더라도 현행 시스템이 적용되고, 폐지 후에 들어오는 신입생만 일반고 적용이되며, 시, 도 교육청의 운영 평가를 통한 소극적인 일반고 전환 방식이나 특목고의 존재 자체를 없애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일반고화가 될 전망이다.

특목고란 교육내용 중 특정한 과목의 뛰어난 인재를 뽑아 육성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러한 특목고가 폐지되어야 할 첫번째 이유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다. 특목고에 가면 정시 혜택, 다양한 교육 과정, 좋은 시설과 환경 등 일반고보다 많은 특혜를 누릴수 있기 때문에 여러 학부모와 학생은 특목고에 가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사교육비 부담

과 학습량 증가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두 번째로 특목고는 일반고보다 2~3배에 달하는 학비로 인해 계층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특목고에 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부담이 되는 학비를 저소득층이 감당해 낼 수는 없다. 또한 입학하더라도 조기교육으로 훈련된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특목고를 높은 성적으로 졸업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교육의 평등성이 지켜지지 않고 공교육을 훼손하는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찬성 의견과는 반대되는 의견 또한 있다. 특목고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다. 언어, 음악, 예술 등에 재능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로 갈 수 있도록 나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의도로 세워진 학교이다. 특목고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의견은 특정 분야에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특목고는 존재해야 한다. 예체능에 뛰어난 인재들은 일반고보다 특성화된 고등학교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지원이나 체험이 가능하므로 효율성이 더 높다. 두 번째는 과도한 사교육의 근본적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특목고는 애초에 일반고의 설립 취지와 다

르다. 이러한 학교를 없앤다고 해서 사교육, 대입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특목고들이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오히려 자신이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있게 공부할 기회가 줄게 되며 다양한 분야의 고등학교가 사라지므로 대입전형이 줄어들어 대입도 훨씬 과열된 양상을 떨 것이다.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표로 하는 학교'의 특목고는 위와 같이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에 놓여져 논쟁을 주고 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 특목고 또는 일반고를 가는 대상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목고가 과연 우리의 능력을 전문적으로 향상시켜줄 수 있는 공간 일지, 많은 학습량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될 장소가 될지 정하는 건 우리의 몫이다. 내 진로에 도움이 될 학교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특목고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교육부
김지혜, 백민서, 양윤서, 최은진, 홍수아 기자



바야흐로 수시의 시대,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수시 전형이 1등급을 위한 들려리라는 주장

대학입시 전문 사이트 중 '메가스터디'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00대 학교 수시전형으로 간호학과의 경쟁률은 30.4, 경영학과는 37.2, 경제학부는 31.4를 기록했다. 수시 전형의 높은 경쟁률이 보여주듯 대부분의 수험생이 수시 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내신 및 비교과 활동을 포함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입학사정관들이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이에 덧붙여 수능최저등급을 요구하거나 구술면접까지 치러야만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요즘 대세는 학생부종합전형이며, 내신이 살짝 낮아도 엄청난 비교과활동으로 명문대학을 진학하는 사례들도 있다.

전문입시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흔히 말하는 스카이대학의 합격선은 내신이 1.2로 추정된다. '내신 조금만 잘 받고 비교과 활동 열심히 하면 나도 충분히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전교상위권 안에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내신은 끝까지 따라오기에 만일 좋지 않을 경우 대비책인 정시나 논술전형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불공평한 체제에서 학생들은 모든 힘을 다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전교상위권 안에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내신은 끝까지 따라오기에 만일 좋지 않을 경우 대비책인 정시나 논술전형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지윤 기자
술술술~ 풀려라~~~

자유학년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중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민

'자유학년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라고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말을 한다. 자유학년제란 초등학교에서 넘어 온지 얼마 안된 중학교 1학년들의 적응을 돋기 위하여 1년 동안 시험 없이 수행평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진로 탐색을 돋기 위한 활동이다. 하지만 자유학년제는 2017년부터 전면 실시되어 아직 많은 학부모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곤란해 하고 있다.

물론 자유학년제를 실시함으로서 장점들도 많이 있다. 첫 번째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시험을 보지 않아 남는 시간동안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부족한 부분을 공부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진로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원래 자유학년제의 목적은 중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돋기 위한 활동이므로 학교에서도 2,3학년들이 시험 볼 때 밖으로 나가서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도 있고 학교에 진로와 관련된 외부 강사 선생님을 불러 수업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유학년제도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신에 미치는 영향이다. 내신점수에 1학년 때 성적은 20%, 2학년 때는 30%가 반영되어 2학년 때의 시험이 1학년 때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1학년 때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에 대한 시험 연습을 해 놓지 않으면 2학년이 되어 시험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내신비중이 더 높은 2학년 때 낮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 또 다른 문

제점은 자신이 원하는 동아리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의 일환으로 동아리(진로체험프로그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동아리에는 정원이 정해져 있다. 이로 인해 선착순에 밀린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가 있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학년제는 다양한 진로에 대해 찾아보고 자신의 진로를 정하게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성적이 떨어지는 등 안 좋은 단점도 많다. 1년 동안 시험을 안 본다는 것은 2학년 때의 준비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들이 시험 볼 때 중학교 1학년들도 똑같이 성적에는 안 들어 가지고 지필 평가 연습 시험을 보는 것은 어떨까. 또한 지금은 외부 강사 선생님들을 다 초청한 뒤에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동아리와 인원이 정해져 있지만 인원을 정하지 않고 원하는 동아리를 신청하게 한 다음 신청인원이 적거나 없는 동아리는 없애 버리고 인원이 많은 동아리를 여러 개로 나눈 뒤 외부 강사 선생님을 초청하는 하는 방법은 어떨까.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최은진 기자



문화부

'암표'를 아니나요? 해도해도 너무한 암표



공연 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한 번쯤 티켓 구매를 실패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인기 있는 가수의 공연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동이 나기 마련인데 티켓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표를 구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이 점을 노려 티켓을 대량 구매해서 비싼 값을 붙여 되파는 일명 암표가 늘어나고 있다. 암표란 법을 위반하여 사고파는 각종 탑승권, 입장권 따위의 표를 뜻하는 말



민간요법은 사람들 속에서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면서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손쉬운 치료 방법이다. 의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병을 고치기 위하여 주변의 물질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민간요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일부는 많은 사람들이 민간요법이 아닌 의학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코피가 날 때 고개를 뒤로 젓히는 것, 체하면 바늘로 손을 따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잘못된 지식이다. 코피가 날 때 고개를 뒤로 젓히면, 피가 목으로 넘어가 폐로 들어간다.

이다.

실제로 지난 5월 31일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 피날레 콘서트'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매진 됐다. 따라서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은 양도를 구하는데, 이 양도 제시 가격이 100만 원 가까이 치솟아 오른 적이 있다.

암표를 파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뉜다. '일반 티켓 판매자'와 '전문 암표 판매업자'인데 이 둘은 표를 되판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일반 티켓 판매자는 양도한다는 글을 sns에 올리고 구매자 중 가장 비싼 값을 제시한 사람에게 파는 반면에 전문 암표 판매자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일괄적으로 표를 쓸어 담아 중고사이트나 현장에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하는 차이점이 있다. 순수히 공연을 보려고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보다 암표 판매자가 더 많이 표를 구매하게 되어 이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에 맞게 거래수법도 굉장히 지능적이게 바뀌었다. 암표상들이 만약 A열에 5번째 좌석을 잡으면 구매자들에게 입금 전 까지 A열에 몇 번째 좌석이다. 라고만 알려준 뒤 구매자가 돈을 보낸 것을 확인 한 뒤에 정확한 자리 위치를 알려준다. 이런 애매한 정보 덕분에 소속사나 티켓 판매 대행업체들은 암표 하나를 잡으려고 그 줄을

전체 좌석 최소 시켜야하는 일이 발생해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사 적발이 된다 해도 법이 확실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아 처벌은 미미하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은 뮤지컬, 콘서트, 입장권 등의 암표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암표를 판매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암표를 파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이를 사려는 사람 또한 큰 문제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혹은 배우를 어떻게 해서든 보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엄연한 위법행위이며, 같이 공연을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 사는 사람이 있으니 파는 사람이 있다. 라는 말이 있듯이 불법적인 암표 거래 행위를 막으려면 우리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꼭 필요하다.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심영준, 김민주, 강현규, 김주완, 길원영 기자

민간요법, 당신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민간요법

이는 폐렴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체했을 때 손을 따는 것은 잘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바늘로 손을 따면 몸속에 세균이 들어간다.

반면에 민간요법들 중,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안전한 것들도 존재한다. 호두를 먹으면 기침이 나아진다는 것이 그 예이다. 호두는 비타민 A,B,C,E가 존재하는 슈퍼푸드로 <동의보감>에서는 몸을 튼튼하게 하며 기혈을 보호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얼음 대신에 두부와 밀가루를 섞은 해열시트를 이마에 올려놓고 있으면 열이 내린다는 것도 검증되었다. 얼음은 피부 표면의 온도만 낮춰주는 반면에, 두부는 열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민간요법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그러나 민간요법에는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체질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다. 때문에 민간요법을 실시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민간요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첫째, 민간요법을 병행할 때의 주의사항을 알아두어야 한다. 간질환 환자가 많이 복용하는 녹즙의 경우 당근, 쑥, 미나리 등을 함께 먹으면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 둘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들이 맞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셋째, 민간요법을 정확히 해야 한다. 사용법을 확실하게 알고, 정해진 사용량을 지켜야 한다.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 호두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역효과가 나서 설사를 할 수 있다. 더불어, 전반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약초를 활용한 민간요법은 특히 그렇다. 약초 중에서는 독성이 강한 것도 있고, 체질에 따라 맞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민간요법,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알아야 한다.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채원 기자

사랑이란 가면 속에 숨겨진 폭력

청소년 데이트 폭력,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사랑싸움'을 빙자한 데이트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사랑싸움이란 사랑으로 인하여 악의 없이 벌이는 싸움을 말한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은 상대방에 해를 가하는 '폭력'이다. 현재 이성 교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청소년기에서부터 이성 교제를 시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대개의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연인에게 혼신적으로 잘 해준다. 따라서 판단이 미숙하고 이성 교제에 있어 서투른 청소년은 사랑싸움과 데이트 폭력을 잘 구분하지 못 한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잘 드러나지 않아 간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가고 깊게 남는다. 피해자들은 우울증과 마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20대 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심리학협회의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들 중 1/3 이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일본은 도쿄 등 8개 주요 도시에 사는 14~19세 남녀 2,122명(여자 1,321명, 남자 801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여자 청소년의 44%, 남자 청소년의 27%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다."라고 답했다. 이는 남

자 청소년도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에 남녀 구분 없이 참여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데이트 폭력'에 대해 둔감하다. 따라서 드라마나 영화에 데이트 폭력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대중적인 생각과는 달리 남자 주인공이 억지로 여자주인공을 덮치는 장면이나 벽치기, 납치, 극중 연인 간 폭력이 모두 데이트 폭력에 해당된다. 실제로 SBS드라마인 '우리 갑순이'는 극 중 갑돌이 헤어지자는 갑순을 벽에 밀치고 키스하는 장면이 그려지며 데이트 폭력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매체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모방심리와 연예인을 동경하는 문화는 연예인들이 연기하는 '흔한' 데이트 폭력 장면을 자칫 잘못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청소년 예방교육에 힘써야 한다.

김해중 대전보건대 과학수사과 교수는 "데이트 폭력을 연인 간 애정다툼이나 사랑싸움으로 치부하는 사이 살인, 납치·감금, 성폭행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



며 "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청소년기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에서 가르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다. 사랑한다는 명분하에 상대를 강제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되며, 사랑싸움 애정다툼 등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 데이트 폭력은 우리주변에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성 교제의 폭이 넓어진 만큼, 청소년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정립하여 건강한 이성교제를 해야 한다.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조혜림 기자

스포츠연예부

우리 모두 페이퍼레이이

스포츠맨십의 세계



현대인이 가장 많이 즐기는 여가로 스포츠를 뺄 수는 없다. 그만큼 스포츠 관람도 큰 인기가 있다. 하지만 스포츠를 관람 하다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있다. 스포츠 선수들이 규칙을 어기고 비겁한 플레이를 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스포츠 경기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스포츠 자체에도 부정적인 시선이 남게 된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스포츠맨십이 부족했다.'라고 표현 한다.

스포츠맨십이란 스포츠맨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로, 공정하고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스포츠맨십을 지키지 않은 선수들도 많

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명 축구선수인 마라도나의 '신의 손'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의 8강전 당시 마라도나가 핸드볼 반칙을 통해 1점차 승리를 얻은 것이다. 이 사건에서 마라도나는 반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은퇴 후 반칙 사실과 함께 부족했던 스포츠맨십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올바른 스포츠맨십을 지닌 선수들도 많다. 3,200m달리기의 마지막 트랙에서 1위로 달리던 선수가 심하게 넘어졌다. 2위로 달리던 선수에게는 좋은 기회였지만 1위를 탈환하지 않고 넘어져 있는 선수를 부축하여 그가 1등으로 도착하는 것을 도왔다. 2016 테니스 오픈에서는 잭 삭 선수와 휴잇 선수의 경기에서 올바른 스포츠맨십을 볼 수 있었다. 레이튼 휴잇 선수는 서브를 하였지만 심판에게서 out 판정을 받았다. 그 순간 잭 삭 선수

는 휴잇 선수에게 다가가 "그 것은 in이었으니 재심을 요청하라"라고 말하였다. 이 행동은 자신이 실점할 것을 알면서도 규칙을 지킨 잭 삭 선수의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또한 수원에서 열린 u20 월드컵에서 대한민국과 야 팀인 기니의 경기가 있었다. 대한민국이 2점차 이상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선수에게 근육 경련이 발생하였다. 그 때 기니의 한 선수는 손수 스트레칭을 해주는 올바른 스포츠맨십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스포츠경기에서 스포츠맨십의 준수는 경기의 재미와 공정성을 좌우한다. 스포츠맨십을 잘 지키면 재미있고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있다. 경기의 결과만을 중시하면 승리를 위해 스포츠맨십을 잊을 수도 있다. 스포츠의 궁극적인 목표는 즐겁고 공정한 경기 과정과 결과일 것이다. 이를 위해 스포츠맨십을 함양하는 것은 스포츠맨의 의무이다. 즐거운 스포츠 경기를 위해서라도 규칙을 준수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스포츠맨십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승현, 목민수, 채희은기자



축구에 이런 일이? 축구계의 수많은 기적

2017년 3월 9일, 스페인의 명문 구단인 바르셀로나는 5점의 득실차를 역전하는 기적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축구팬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한편으로 축구계의 다른 기적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그렇다면 축구계에는 어떠한 기적들이 있었을까? 이제부터 축구계를 대표하는 기적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많은 축구팬들이 기억하는 '이스탄불의 기적'이다. 이스탄불의 기적은 유로 2004 결승전 경기에서 일어난 기적이다. 이 당시 결승 진출 팀은 이탈리아리그를 호령하던 'AC밀란'과 잉글랜드 리그의 약체로 평가받던 '리버풀'이었다. AC밀란은 그 당시 모든 축구팀을 아우르는 최고의 팀으로 평가받았지만 리버풀에 대한 평가는 냉랭했다. 모두가 AC밀란의 우승을 예상하는 분위기로 경기가 시작되었다. AC밀란은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을 넣고 이후 2골을 몰아넣으며 강팀의 위세를 떨치며 승기를 굳혔다. 일방적인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의 시작과 함께 기적이 시작되었다. You'll never walk

alone(너희는 혼자 걷지 않는다)라는 리버풀의 응원가에 힘입어 리버풀의 주장 스티븐 제라드가 골을 넣었다. 그 후 리버풀은 스미체르가 추격 골을 넣고, 알론소가 페널티 킥을 성공시키며 동점을 만들어냈다. 결국 승부차기에서 리버풀의 골키퍼가 선방을 하며 리버풀은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됐다.

두 번째는 캄프 누의 기적이다. 캄프 누의 기적은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인 캄프 누 경기장에서 열린 98~99년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말한다.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바이에른 뮌헨의 대결이었다. 경기가 시작되고 3분 만에 바이에른 뮌헨은 프리킥을 성공시키며 흐름을 완전히 가져갔다. 그렇게 정규시간이 모두 끝나고 맨유는 희망을 잃어갔다. 그 때, 교체 투입된 맨유의 세링엄이 코너킥을 성공시키며 동점골은 만들었다. 그로부터 2분 뒤, 교체 투입된 솔샤르가 코너킥 상황에서 역전골을 터뜨리며 맨유는 챔피언스리그 우승트로피를 차지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레스터 시티의 기적'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최약체로 평가 받던 레스터 시티는 15~16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전까

지는 2부 리그 강등후보 팀 중 하나였다. 창단 이후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레스터 시티의 최고 기록은 리그 준우승이었다. 이렇듯 아무도 레스터 시티의 선전을 예상하지 못했다. 영국의 도박회사인 윌리엄 힐에 의하면 레스터 시티의 우승에 배팅된 배팅비율은 5000:1로 레스터의 우승을 점친 것은 12명 뿐이었다. 하지만 리그의 개막과 함께 레스터의 돌풍은 시작되었다. 감독인 클라우디오 라니에리의 신선한 전술과 공격수인 제이미 바디의 활약으로 레스터는 리그 선두를 달리게 되었고,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와 같은 강팀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은 재미있다.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재미있는 사건들을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스포츠의 대한 열정으로 만들어진 배경지식은 우리가 더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스포츠 자체만을 즐기는 것 보다는 그 주위의 이야기들에도 관심과 흥미를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승현 기자



당신의 말 한 마디, 연예인들의 삼천

연예인들을 비하하는 안티팬들



수많은 연예인들에게는 안티팬들이 있다. 아무리 유명하고 재능이 뛰어난 연예인이라고 해도, 안티팬들의 악의는 피해갈 수 없다. 이들은 연예인의 집에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

는 소포나 편지들을 발송함으로써 특정 연예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 또한, 블로그, SNS를 통해 욕설과 루머를 퍼뜨리고 기사에 악플을 단다. 특히 요즘, 발달해가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 사이에 아주 빠르게 진행된다. 요즘에는 안티 사이트를 만들어서 안티팬들끼리 연예인들을 험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에서 안티 사이트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이후로 이러한 일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1,050여 개가 훌쩍 넘는 안티 사이트들은 연예인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불

려일으키고 있다. 지난 3월 26일,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이 한 안티팬에게 협박을 받았다. 안티팬이 자신의 SNS에 지민에 대한 협박 메시지와 함께 총 사진을 올린 것이다. 이에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관계자는 안티팬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또 다른 예로는, 지난 5월 15일, 트와이스가 '시그널'을 발표한 후의 일이 있다. '시그널'의 컨셉인 초능력이 엑소의 초능력 컨셉을 패러디했다는 것이다. '엑소는 데뷔 전부터 초능력 컨셉을 준비했고, 즉 초능력은 엑소 자체를 의미한다.'는 입장의 엑소팬들은 트와이스 관련 기사에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트와이스의 팬들 역시 이에 대해 반박하며 엑소에 대한 인신 공격을 하는 글들을 남겼다.

안티팬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정신적 피해만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고(故)최진실 씨의 사건이 대표적이다. 고(故)최진실 씨는 배우 생활을 하면서 많

은 악플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던 중, 2008년 9월 8일, 배우 안재환 씨가 사망했고, 그 원인이 고(故)최진실 씨의 사채업 때문이라는 루머가 나돌았다. 이로 인해 고(故)최진실 씨는 심한 두려움과 모멸감을 느끼고 자살을 선택했다.

많은 사람들이 TV 속의 연예인들의 모습만 보고 연예인들 그 자체를 판단한다. 좋아하는 연예인과 싫어하는 연예인을 구분하는 것도 악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주거나 보호하는 것이 옳지 않듯이 싫어한다고 해서 공식적인 안티 사이트에 글을 남기는 일 또한 옳지 않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자신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잊지 말자.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채원 기자



가짜뉴스, 당신은 구분할 수 있습니까?

넘쳐나는 정보 속 가려지는 진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정치권에 대한 높아진 관심도만큼 Social Network Service(이하 SNS)를 이용한 가짜 뉴스가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등장한 가짜 뉴스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는 SNS에서 96만 건 이상 공유됐으며 힐러리 클린턴이 ISIS에 무기를 팔았다는 가짜 뉴스는 70만 건 이상 공유됐다. 대한민국에서 유포된 가짜 뉴스인 "○○○ 특검이 여기자 를 성추행했다", "○○○ 특검도 성 추문으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등은 주요극우단체가 특검과 현재를 겨냥해 퍼뜨린 가짜 뉴스 중 일부이다.

가짜 뉴스는 '첫인상 효과'를 일으켜 이를 정정하기 어렵다. '첫인상 효과'란 먼저 제시된 정보가 추후 알게 된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왜곡된 정보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게 되는데 이것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으로 이

어질 경우 다시 바로잡기 힘들다. 가짜 뉴스는 인터넷 기사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진위를 가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언론사 이름도 많은 언론사 중 하나로 인식해 더욱 구분하기 까다롭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을까. 먼저 글로 된 뉴스의 경우 무슨 뉴스인지, 글쓴이와 출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내용이 흥미롭다면 검색엔진에 일부 단어를 넣어서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 흥미롭고 새로운 뉴스를 하나의 언론사에서만 다루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면, 확대 재생산 되는 가짜 뉴스의 속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적절히 읽고 이해할 줄 아는 능력으로, 글을 읽고 그에 대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현재 법에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



하의 벌금을 문다. 언론사를 사칭한 가짜 뉴스에는 형법 제314조 1항 업무방해죄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를 3대 반칙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했다. 악의적 가짜 뉴스는 3대 반칙중 사이버 반칙행위로 규정돼 엄격히 단속되고 있다.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가짜 뉴스, 이를 막기 위해선 처벌도 중요하지만 대중들이 스스로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채희은 기자

칼로 칼을 막을 수는 없다

테러에 대처하는 자세

지난 5월 22일 영국에 위치한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로 22명이 숨지고 116여명이 다쳤다. 대부분 테러에 관한 정보는 뉴스를 통해 다른 국가의 이야기로만 들려오기 때문에 대한민국과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우리나라를 공격 대상국가 중 한 곳으로 지목하면서 우리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만은 없게 됐다.

과거의 테러는 불만을 일으키는 계층에 대해 한정적으로 공격했다. 반면에 현대의 테러는 비정치적 대상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공격이 가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에 그 피해가 더욱 큰 것도 사실이다. 또 휴대폰 동영상과 sns를 이용해 테러행위를 언론으로 퍼뜨리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극대화시키기도 한다.

테러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떤 조직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시키고자 발생시키는 것이다. 테러가 발생하게 되는 배경에는 주로 종교적 갈등이 있다. 2015년 11월

13일에 발생한 파리 테러를 보면, 프랑스가 테러의 표적이 된 이유는 내부적으로 프랑스의 정치와 종교가 심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프랑스가 이슬람 과격주의 세력을 칙결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맨체스터 테러도 고도화된 공격 체계를 보아 이슬람국가(IS)와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종교적 갈등 말고도 강대국 사이의 이권다툼도 테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테러는 국가 사이의 이해 관계, 정치적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얹히고 섞혀 발생한다.

테러는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국가적인 재난으로 여겨질 만큼 공격과 피해의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적 부담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해당국 사이의 단순한 합의로 끝낼 것이 아니라 UN과 같은 단체의 중재가 필요하다. 종교적 차이, 국가적 차이 등 모든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몰아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



모든 물리적 갈등의 끝은 승패가 아니라 폐허와 고아, 아이들의 울음뿐이다. 테러 형태의 변화에 따른 테러정책 변화와 시민교육에 앞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인정하고 국가들이 서로의 이익에만 집중하지 않는 자세가 갖춰지는 것이 인류가 테러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화성시청소년기자단 백민서 기자

고발 프로그램을 고발하다

고발 프로그램, 그 안의 이면성

'당신들은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던 수많은 사람의 희망과 전재산을 없애버렸습니다.' 한 고발 프로그램의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올라온 글 내용이다. 작성자는 평소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살았으나 해당 프로그램 방송 후 폐업을 하게 되었고 큰 빚을 지게 되었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처럼 고발 프로그램의 취지와는 다르게 잘못된 보도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동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왕 카스텔라 사건이 있다. 방송에서는 대왕 카스텔라 제작 과정에서 가공된 액상 달걀과 화학 첨가제, 700ml가량이나 되는 많은 양의 식용유가 사용된다며 문제로 삼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내 대왕 카스텔라 가맹점업체 20여 개 중 단 한 군데에만 속할 뿐이었다. 방송은 이 특정 업체를 고발하는 모습이 아닌 대왕 카스텔라 자체의 제작 과정을 일반화 시킨 채로 내 보내졌고 소비자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다. 결국, 전국에 있는 대왕 카스텔라 집들은

매출 하락, 폐업, 개업 취소와 같은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다. 이 밖에도 별집 아이스크림, 생과일 주스, 눈꽃 빙수 등 일부 단편적인 모습을 일반화시켜 막심한 피해를 본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발 프로그램에 피해를 본 영세 상인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언론 중재 위원회에 알려 피해금을 받기도 하지만 이미 받은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다. 특정 내용에 대해 고발하는 고발 프로그램은 콘텐츠의 내용이 자극적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에 시청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사람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로 왜곡되거나 잘못된 내용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시청자들은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에게 실체를 폭로하고 건강을 보호해주겠다



는 취지로 한 방송이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연달아 피해를 본다며 고발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잘못 보도된 사실을 정정해도 이미 회복을 못 해 문을 닫는 사람들이 생겨나 계속 논란이 되었던 고발 프로그램. 이제 시청자들이 좀 더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식을 바꿔 판단해야 할 때이다.

화성시청소년기자단 박나현 기자

우리 만나고 싶지 않아요!

대학의 학과 통폐합, 어쩔 수 없는 선택일까?



지난 5월, 뉴스페이퍼 신문사에서는 '문예창작과(이하 문창과) 통폐합 특집'을 연재하였다. 전국 문창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이다. 이 특집에서는 동국대학교, 단국대학교, 경기대학교 등 문창과 통폐합이 이미 진행됐거나, 논의가 됐던 학교 학생들이 기고한 기사를 올리고 있다.

대학이 학과 통폐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부가 실행하는 대학구조 개혁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야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학과 통폐합의 희생양이 되는 학과는 무엇일까. 취업률이 낮은 과, 바로 인문학과 관련된 학과이다. 실제로 많은 대학들의 학사구조개편안을 살펴보면 인문계열 학과들이 이공계열 학과에 통합되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인문학과 관련된 학과는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학과 통폐합을 당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학생들은 학과 통폐합 시장기 휴학(군 휴학) 학생들의 수강 권리가 박탈되며, 학교 커

리큘럼의 변화로 혼란스럽다고 말한다. 또한 원하는 과목의 수강이 제한되고 폐지 대상 학과 학생들의 소속감도 결여된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교수들 또한 학과 통폐합에 부정적임이 사실이다. 학과 폐지 시 교수들은 일자리를 상실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학문의 다양성이 파괴되며 후학 양성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 측이 학생과 교수들에게 학과 통폐합에 대한 사전 공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많은 대학들은 구성원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학사구조개편안을 통보하고 있다. D 대학교 생명의료정보학과에 재학 중이던 15학번 학생들은 입학 후 3주 만에 학과 통폐합 소식을 들었다.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학교 측 때문에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전과를 하거나 자퇴 후 재수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대학의 설립목적이 언제부터 취업이 된 것일까. 대학은

본래 학문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다. 취업하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해 더욱 심화적인 내용을 배우는 곳인 것이다. 학생들이 배우고자 해도 대학이 그 배움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은 대학 설립 목적에 모순되는 행위이다. 학생과 교수들은 학과 통폐합에 끊임없이 반발하지만 대학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독불장군처럼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사구조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코앞이 아닌 4~5년 뒤의 미래를 고려한 후 대학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한다. 불가피한 이유로 학과 통폐합을 실시해야 할 경우 실제로 통폐합 될 일자보다 4년 전에는 고지해줘야 재학생, 신입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전혀 관련이 없는 학과와의 통합을 피하고 관련성이 깊은 학과와 통합을 실시해야 해당 학과들의 커리큘럼을 좀 더 보존할 수 있다.

대학의 돈벌이를 위해 이용되는 학과 통폐합. 이제는 학생과 교수, 대학의 소통이 개방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져 셋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채희은 기자



인간의 존엄사... 우리는 인정해야 할까

죽음보다 더 힘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존엄사란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한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하게 하는 것이다. 존엄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콜롬비아, 캐나다는 존엄사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존엄사는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존엄사는 '죽을 권리'라는 인간의 존엄을 위한 권리로서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으며 실제로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존엄사를 인정하는 국가 벨기

에의 실제 사례를 들면 '마리케 베르보트'라는 훨체어 스프린터 선수는 2000년에 난치성 척추 질환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기절도 수차례 경험했다. 그녀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몸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리우 올림픽에서의 금메달과 은메달을 마지막으로 의사 세명의 서면동의 후 존엄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이들이 존엄사를 선택하고 있다. 실제로 존엄사를 허용하는 국가 중 몇몇은 외국인의 존엄사도 허용하고 있는데 2012년 이래 최근까지 한국인 18명이 스위스의 존엄사 주선 비영리기관 '디그니티스'에 존엄사를 신청했다는 조사 결과가 존재한다. 이 조사에서는 한국의 악력사 신청이 아시아 최다라는 결과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음보다도 두렵고 힘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스스로 죽을 권리를 주장하고 선택한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에 대한 사건이 붉어진 것은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할머니는 2008년 폐암여부 확인을 위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여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 출혈로 인한 뇌손상에 의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 할머니의 가족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편히 돌아갈 수 있게 하고자 병원 측에 존엄사를 요청했으나 병원에서 이를 거절했다. 김 할머니의 가족은 이에 대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은 김 할머니의 존엄사를 허용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다고한다.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 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존엄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살 권리가 존재하듯이 죽을 권리도 존재한다. 생명은 고귀하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선택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반해 존엄사의 법적허용을 반대하는 측은 '존엄사 집행허용을 검사 혹은 판사가 하고 집행을 의사가 하게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오류가 생긴다면 이는 단지 자살하고자하는 이들이 허위 진단서로 법적허용을 받아내 자살을 하는 자살의 또 다른 방법으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찬성과 반대 중 어떤 측의 주장이 옳은지는 명쾌히 판단할 수 없다.

존엄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법으로 막아서야 하는 것일까? 혹은 존엄사는 그저 또 다른 자살방법이 아닐까? 와 같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따라서 죽음보다 더 힘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존엄사를 선택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이다.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아령 기자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변화하는 사회와 일자리

우리가 SF영화에서만 보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온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지능적으로 발전시켜 준다. 또한 4차산업혁명은 근거리통신기술, 정보처리기술, 바이오산업,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비약적인 발전을 만들어내 인류문명을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화려한 이점들 반대편에는 단점들이 있다.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일자리 문제다. 로봇과 인공지능 등 훌륭한 일처리기술을 가진 기계를 도입하여 일의 효율성을 늘리는 반면 기계가 가져간 일자리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인공지능의 대체는 대량해고로 인한 실직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실제로 독일의 코르메츠 은행은 디지털화로 인해 9000여명의 직원이 해고했다고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과거 다른 산업혁명과 달리 지식인들도 피해갈 수 없다. 운송업, 제조업,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약사, 외과의사 같은 전문직 또한 사라지고 만다.

많은 청소년들이 안정된 미래와 수입을 위해 공무원, 전

문직 등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하위공무원과 대다수의 전문직들은 미래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라질 직업들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4차산업 혁명은 여러 직업을 사라지게 만들지만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를 창출 해 낸다. 한 직업의 수명이 짧아지면서 일자리를 알려주고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자리 전환 매니저, 새로 나온 기술을 비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에 응답하는 백래서, 세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는 글로벌 중앙관리 시스템 설계자 등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양한 일을 처리하는 여러 직업이 창출된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인공지능도 해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인간의 '감정'과 '창조적' 발상이다. 미래에는 이와 관련된 윤리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등 인간의 감정과 생각, 정신 등을 연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들과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연예인, 운동선수 등 예체능과 창의적인 일을 하는 일자리도 남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미래에 갖지 못하여 아쉬울 수도 있지만 남거나 새로 창출되어지는 일자리 중에서도 내 적성에 맞거나 흥



미를 끄는 직업이 있을 수 있다.

제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적이며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지능적 기능, 방대한 넓이의 연결망의 초연결적 기능으로 과거 그 어느 혁명 때보다 빠른 시간 내에 발전하고 앞으로의 발전도 무궁무진하다.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변해가는 사회의 흐름을 깨닫고 미래에 내가 어떤 직업으로 사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로를 계획하는 청소년으로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지혜 기자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태어나고 싶은가요?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티비 속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의 이름을 말한다. 흰 피부, 앵두 같은 입술, 커다란 눈을 보면 요즘 대한민국의 롤모델은 영화 속 공주들인 듯하다. 이는 단순히 여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성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외모에만 신경 쓰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외모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외모와 상관없는 사항에서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잘못된 사상을 외모지상주의, 영어로는 루키즘 혹은 뷰티즘이라고도 부른다. 외모지상주의는 미국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새파이어가 2000년 칼럼에서 인종, 성별 등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차별요소로 지목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 루키즘은 사회가 점차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되어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대중 매체가 발전하며 확산되었다. 이러한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일수록 외모를 통해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모를 가꾸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도 강하다.

외모지상주의의 폐해 중 하나는 외모로 인한 평가이

다.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외모는 쌓아야 할 스펙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스펙이나 면접 때 문제가 없었는데 떨어졌다면 그 이유를 외모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가치관에 따라 우리나라엔 성형 열풍이 불고 있으며 취업 성형이란 신조어도 생겨났다. 그렇다면 외모는 정말 취업과 상관이 있을까? 그렇다.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94%는 채용시 외모를 고려한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 청소년들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었다. 한 다큐 프로 중 여중생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는 돈보다 성적, 성적보다 외모가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뚱뚱하고 못생기면 백퍼센트 왕따를 당한다고 발언한 것을 보아서 외모지상주의의 폐해는 이젠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얼굴로 평가하는 사회가 된다면 내면은 황폐화되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연예인을 과도하게 이용한 선전적, 허위적인 광고를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같이 주변에서 볼만한 친근한 이미지를 대중화 하여 이러한 예쁜 외모적 가치관을 달라지게 하고 이에 대한 평가 또한 개선되게 해야한다.

예뻐지길 원해요

외모지상주의의 폐해, 외모 평가



세계적인 영화배우 소피아로렌은 '아름다움이란 마음으로 느끼고 눈빛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단지 외모적인 무언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모습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태어나지만 알게 모르게 강요된 획일화된 미의 기준으로 우리 외모를 평가할 수는 없다. 사람마다 지닌 선천적인 특징이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누군가의 소중한 몸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또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외모지상주의 사회를 이겨나가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인류가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가 아닐까.

화성시청소년기자단 홍수아 기자

안에 들어가 있어 여전히 문구점 화장품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이다. 또한, KBS '위기탈출님버원'에서 실행한 성인용 화장품과 문구점 화장품 비교실험에서 문구점 화장품이 성인용 화장품보다 더 지워지지 않았다. 발암 물질이 들어간 화장품이 어린아이들의 여린 피부에서 잘 지워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해치고 있다.

그렇다면 해로운 성분의 화장품을,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부모가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성분을 잘 확인하고 쓰게 해야 한다. 어린 나이에는 좋은 성분, 나쁜 성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라서 발암물질들이 포함된 화장품은 피하도록 해야 하며 문구점은 화장품을 팔기에 적절하지 않은 곳임을 되새겨 주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피부를 위해 유기농 화장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추천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문구점에서 파는 해로운 화장품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한 국가의 대처도 필요하지 않을까?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양윤서 기자

학교 앞 발암물질 문구점에도 화장품이?

화장을 시작하는 가장 적절한 나이는 언제일까? 이는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빨리야 중학생 후반, 보통 고등학생 때 화장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최근에는 화장을 시작하는 나이는 급격히 빨라져 초등학생 때 화장을 시작하는 아이들은 배가 되었다. 성장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 때 화장을 시작하는 반면에, 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은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들을 위해 학교 근처에 자리 잡힌 문구점에서 좋지 않은 화장품들을 사서 사용하는 것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들의 45%가 화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화장을 접하게 되는 곳은 바로 TV와 스마트폰 속이다. TV를 틀면 나오는 연예인의

화장이나 뷰티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뷰티크리에이터들의 화장법을 본 아이들은 점차 그것에 관심을 갖고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퍼지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화장'을 알게 되는 것이지, '화장품'은 잘 알지 못한다. 그런 아이들이 가장 빨리 접하는 화장품은 바로 문구점에 있는 값싼 틴트, 블러셔 등의 색조 화장품들이다. 그런 화장품들은 값싼 만큼 몸에 굉장히 해롭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그런 화장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 초등학생은 친구들과 재미 삼아 문구점에서 산 틴트를 발라본다고 답하였다. 이렇듯 문구점은 어느새 아이들의 단골 화장품 가게가 되었다. 그런데, 저렴한 틴트 안에는 적색 2, 3호가 들어있기도 하다. 적색 2호는 발암 물질로 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상황이다. 적색 3호는 심하면 갑상선 종양을 일으키는 악성 물질로 확인되어 한국에서도 금지되었다. 그런 물질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문구점은 학교 근처에서 파는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색 3호가 포함된 문구점 화장품들을 판매 중지 및 회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이는 잘 지켜지지 못하였고, 적색 2, 3호 뿐만 아니라, 훨씬 많은 종류의 발암물질이 화장품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그 치열한 공방

전투비행장 어디로 갈까?

국방부가 2017년 2월 16일 수원 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화성 동부권 주민들이 반대 집회와 더불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민들은 왜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에 반대할까?

첫째, 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협의 없이는 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다는 군공항이전법 4조를 국방부에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국방부 쪽에서 화성시의 '협의거부'를 '협의완료'라 일방적으로 간주하여 결정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부에서 주장한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유치 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주장 역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몇 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 구조상 화성시장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둘째, 전투비행장이 이전할 장소인 화옹지구 인근은 인천공항과 평택 국제항이 인접해 있다. 그곳은 화성시와 경기도에서 구상하는 서해안 벨

트 관광지대가 조성될 곳이다. 국가 경제적으로 수십 조 원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능성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3,000여개의 업체와 더불어 '전투비행장 이전'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피해를 줄 것이다. 그러나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한 찬성 입장 역시 만만치 않다. 수원시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에서 수원비행장 이전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강연을 진행하였다. 그중에서도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여 국회에 통과시킨 김진표 위원은 많은 근거들을 말하며 수원비행장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첫째, 수원군공항은 도심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안정적 작전 운용적으로 제한이 있고, 시설 및 부지 확장에도 한계에 부딪힌다. 또한 무장훈련 중 기체 이상 작동 등 사고가 발생할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훈련횟수와 훈련기간 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화성시민의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김진표 위원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서해 바닷

가에 인접해 있는 화옹지구로 비행장이 이전한다면 소음걱정 및 주민 안전문제도 걱정이 없다"고 밝혔다. 수원시에선 화성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완충지역을 확보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우수 갈등 해결 사례로 뽑힌 부천시와 노정간의 갈등 해결 사례를 보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200회 이상의 실무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노점양성화 정책'을 실행하면서 갈등을 해결하였다. 하지만 화성시와 수원시는 서로의 입장만 고수할 뿐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부천시의 사례를 본받아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에 관련하여서도 양측이 만나 많은 회의를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내면 좋을 것이다.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주완 기자

‘차이’는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사회에 뿌리박힌 장애인차별

지난 5월 4일부터 5일까지 제 19대 대선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전투표율이 26.0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참여율이 높아지고, 민주국가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그 이유는 장애인 유권자들의 사전 투표소 이용에 있어 정부의 배려가 없었다는 점이다. 투표소가 지하, 혹은 2층 이상에 위치해 있는 곳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용 리프트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기표소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를간 사전투표를 위해 마련된 전국 투표소 3,500곳 중 18%가 넘는 641곳이 지하나 2층에 위치하여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 유권자들은 참담한 기분으로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서야 했다.

투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GDP 대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복지와 더불어 인식도 최하위권으로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찾아보기 쉽다.

첫 번째로 점차 들어 길거리에서 점자블록이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사라지고 있다. 이 점자블록이 사라지면 시각장애인들은 길을 오도 가도 못하게되고, 결국 길거리에 나올 수가 없게 된다. 또한 점자블록의 색을 바꾸게 된다면 그것은 없애는 것과 별다를 것이 없다. 우리 눈에서 가장 잘 들어오는 색상은 노란색인데, 희미하게 시력이 남아있는 시각장애인들은 그 노란색을 보며 걷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주 쓰는 언어이다. 가장 대표적인 말로 병어리장갑이 있다. 병어리장갑은 염지손가락만 따로 가르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함께 끼게 되어 있는 장갑을 지칭하는 말이다. 병어리는 ‘언어 장애인’을 낮춰 부르는 말로 손가락이 모아져 있는 모양새를 입을 다문 ‘언어장애인’을 닮았다고 붙여졌다. 최근 이것이 논란이



되면서 대체어로 ‘손모아 장갑’, ‘엄지 장갑’ 등 다양한 대체어가 나오고 있다. 덧붙여서 정상인이 아닌 비장애인, 정신지체가 아닌 지적장애, 장애우가 아닌 장애인으로 바꾸어 불러야 한다.

장애인들이 차별 어린 시선과 말을 듣는 것은 부당한 대우이다. 비장애인은 장애인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닌 그저 장애가 없는 존재이며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민주 기자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지 약 70년이 지났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도 인종차별은 우리 속에 깊숙이 남아있다. 청소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인종차별적 단어가 청소년 사이에서 하나의 ‘은어’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인종차별적 행위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한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짱꼴라’, ‘트남이(동남아인비하)’, ‘흑형’, ‘양기’는 모두 인종차별적 단어이다. 특정 인종이 아무런 이유 없이 비난, 비하 받는 것은 도덕적·사회적으로도 옳지 않다. 청소년이 이를 모르기 때문에 인종차별적 언어와 행동을 구사하는 것일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종차별은 나쁘다’는 인식은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왜 인종차별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첫째로 매개체를 이용한 인종차별인식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SBS<웃음을 찾는 사람들>(이하 웃찾사)에서 개그맨 황

인종차별 No! 알고는 있지만...

청소년 인종차별, 악순환의 고리

현희가 흑인분장을 하고 나와 개그를 펼쳤다가 여론의 물매를 맞았다. 이처럼 특정 인종을 단순 재미를 위한 소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TV방송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자주 접하는 e스포츠에서도 어린 선수들의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봄살을 앓았다. 이는 인종차별적인 행동, 묘사, 언어가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위험성이 내포되어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자주 접하는 TV, 혹은 게임에서의 인종차별적 요소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둘째로, 부모의 다문화 인식이 부족하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성인 4000명에게 ‘외국인 노동자 등 이주민을 이웃으로 삼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3명 중 한명(31.8%)이 ‘다른 인종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호주(10.6%) · 스웨덴(3.5%) · 미국(13.7%) 시민이 보인 반응 보다 3배에서 10배 가까이 높은 확률이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다른 인종에 대하여, 다문화에 대하여 긍정적일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청소년은 인종차별적 행동, 언어가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나가는 사회는 똑같은 인종문제를 낳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러한 악순환은 다문화 사업이나 행사로도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단순히 국가적차원의 다문화주의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는 저서《인종주의》를 통해 이런 부분을 꼬집었다.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문화’만 있는 다문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주자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권리를 갖고 법으로 규정된 복지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결혼 이주 여성이 ‘김치 담그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에서 차별받지 않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에는 이런 실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빠져있다 …(중략) … 이주민을 그저 말이나 배우고 가끔씩 이국적인 축제에나 등장하는 존재로 전락시킨다면 한국 다문화주의의 미래는 어둡다.”

청소년이 만들어 나가야 할 세상은 서로 배척하고 싸우는 세상이 아니다. 서로가 공존하고 화합해야 함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청소년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청소년의 인종을 존중하는 태도야 말로 수십년간 계속된 인종차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조혜림 기자



지난 2월, 경남 창녕군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생후 7개월 된 진돗개 매실이가 개소주가 되어 돌아온 사건이다. 사건의 발달은 매실이 견주인 A씨가 잠시 차를 몰고 집 근처 마트에 다녀왔을 때였다. A씨는 현수막까지 내걸어 찾았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러던 중 동네 주민에게서 ‘누군가 매실이를 데려가는 것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 근처의 주유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차량에서 내린 택시운전자가 매실이를 데려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가족들은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머지않아 범인이 붙잡혔다. 택시기사 B씨는 ‘차도에 차에 치여 죽은 개가 있어 좋은 곳으로 보내주려고 인근 과수원에 묻어줬다’라고 말했고,

우리도 사랑만 받고 싶어요! 동물학대의 심각성



그에 A씨는 매실이를 직접 묻고 싶다며 매실이의 사체를 찾아 달라 요청했지만 B씨는 ‘다른 곳에 버렸다.’ 라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 것을 이상스레 여전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B씨가 매실이를 개소주집으로 데려 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의 인식 수준은 아주 낮은 상태이다. 그 이유는 아직 만연한 개고기 풍습 때문에 개와 고양이 등 동물들을 재산으로 여겨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또한 그 처벌이 미약해 재범의 가능성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일 실험동물 보호강화 및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소유권 제한 등을 담은 ‘실험동물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실험동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험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동물실험이 종료되면 실험시설 운영자·관리자는 실험동물의 건강진

단을 실시하고,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현행법에 따라 동물학대자로부터 동물을 격리 조치할 경우, 법원에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임자권’ 등의 ‘제한 또는 상실’을 청구하고, 법원은 학대행위자의 동물소유권 등의 제한 또는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불필요한 동물실험 축소 및 실험동물 보호 강화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얘기한다.

동물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의 생명체로써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민주 기자

여름방학 청소년진로체험 “직업 탐구 보고서”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문화를 접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여행 PD, 4차 산업의 떠오르는 3D프린터 제품디자이너, 하늘여행의 멋진 동반자 항공승무원을 직접 만나 그들의 직업을 보고 듣고 체험하며 자신의 진로를 펼쳐보자!

- 대상 화성 관내 14~19세 청소년 20명
 - 참가비 직업별로 상이함.
7월 둘째주 유앤아이센터 홈페이지 참조
 - 신청방법 화성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2017.07.17.(월)부터 선착순 접수
 - 문의 화성시청소년수련관 031-267-8856

* 각 체험처로 이동은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서 전세버스로

* 각 체험처로 이동은 화성시청소년수련관에서 전세버스로 함께 이동합니다.

직업군	3D 프린팅 제품디자이너	여행PD	항공승무원
일시	7.28.(금) 10:00~17:00 8.11.(금) 10:00~15:00	8.1.(화) 10:00~15:00 8.3.(목) 10:00~13:00 8.8.(화) 09:00~18:00	8.7.(월) 09:30~13:00 8.10.(목) 08:30~18:00
장소	이오이스(서울 구로), 화성시청소년수련관	KBS(서울 여의도), 별마루필름,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아시아나 캐빈서비스 훈련원(김포공항), 화성시청소년수련관
대상	관내 14~19세 청소년 20명	관내 14~19세 청소년 20명	관내 17~19세 청소년 20명
내용	개인별 3D 피규어 제작, 3D프린터 명찰 모델링, 직업소개서 제작 등	여행영상 기획 및 제작, 서울 여의도 KBS 및 별마루필름 견학, 직업소개서 제작 등	항공승무원 이론수업 및 아시아나 현장실습, 직업소개서 제작 등

※ 위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7월 둘째주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제 4834호

청소년스킨스쿠버 Youth Aquamarine

스킨스쿠버 'Open Water Diver 라이센스' 발급과정

- ★ 기간** 2017.08.05.(토)~08.27.(일)

★ 대상 물에 대한 공포증이 없는
화성시 관내 중·고등학생 15명

★ 장소 유앤아이센터, 수원월드컵경기장 스키스쿠버 풀장,
문암 다이브 리조트

★ 주요내용 스키스쿠버(풀장교육), 이론교육, 응급처치교육,
해양실습 등

★ 참가비 1인, 244,000원
(교육비, 장비대여, 보험, 라이센스발급비,
해양실습 소요비용, 포토북 제작비 등 모두 포함)

★ 접수기간 2017.07.24.(월) 09시부터 유앤아이센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2015년, 2016년 참가자는 선착순 모집에서
제외 됩니다.

★ 문의 화성시청소년수련관 031-267-8855



차시	날짜	시간	프로그램 내용	장소
1	8.5(토)	3h(13:00~16:00)	안전규칙, 기본 이론교육	유앤아이센터
2	8.6(일)	2h(13:00~15:00)	청소년 응급처치(심폐소생술)	
3	8.12(토)	3h(13:00~16:00)	물 적응 훈련 (스킨 다이빙, 이퀄라이징)	
4	8.13(일)	3h(13:00~16:00)	스킨 스쿠버1 (장비적응, 호흡기 물빼기, 마스크 물빼기, 압력평형)	수원 월드컵경기장 스킨스쿠버 풀장
5	8.15(화)	3h(13:00~16:00)	스킨 스쿠버2 (입수법, 호흡기 찾기, 상승하강, 중성부력)	
6	8.19(토)	3h(13:00~16:00)	스킨 스쿠버3 (상승하강, 중성부력, 실기평가)	
7	8.20(일)	3.5h(07:00~10:30)	차량이동 / 휴게소 1회 경유 (화성시청소년수련관 ↔ 문암LF리조트)	유앤아이센터
		5h(10:30~16:30)	해양실습	집결후 강원도 고성
		3.5h(16:30~20:00)	차량이동 / 휴게소 1회 경유 (문암LF리조트 ↔ 화성시청소년수련관)	
8	8.27(일)	3h(13:00~16:00)	심화이론교육 및 수료식 (IANTD OPEN WATER 라이센스)	유앤아이센터

※ 수영은 못 해도 참가 가능하나,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면 참가 어렵습니다.
(부모님 의지 보다, 참가자의 의견을 확실히 반영해주세요)

※ 이퀄라이징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퀄라이징 불가능한자 스킨스쿠버 불가
(입을 닫고 코를 두 손가락으로 잡은 뒤 숨을 내뿜었을 때 고막 압력 변화가 있어야함)

- ▷ 발행기관 : 화성시청소년수련관
 - ▷ 발행인 : 유명규
 - ▷ 편집인 : 오승희, 채희은
 - ▷ 문 의 : 031-267-8854

화성시청소년기자단 9기

채희은(삼고고1), 김민주(안화고1), 박승주(봉담중2), 목민수(봉담중2), 길원영(예당중3),
송승환(병점중3), 김지혜(동탄중3), 강현규(한백고2), 심영준(호매실고2), 양윤서(진안중1),
홍수아(병점중1), 최은진(병점중1), 이채원(석우중2), 조혜림(청계중2), 백민서(동화중2),
김주완(봉담중3), 이승현(석우중3), 김이령(동탄중앙고1), 김지윤(동탄고1), 박나현(향일고1)